



▲'마린보이' 박태환이 25일 오후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일반 자유형 1천500m 결승에 출전해 역영하고 있다. '도핑 파문' 이후 첫 공식 경기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100m·200m·400m·1천500m 등 네 종목에 출전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힘내라! 박태환

광주 남부대서 동아수영대회 18개월만에 복귀전 우승 1500m 올림픽 기준 통과 오늘 자유형 200m 출전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18개월 만에 치른 공식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태환은 25일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첫날 남자일반부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10초9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경기는 박태환이 도핑 파문 이후 처음 치른 공식 경기로, 2014년 11월 제 20회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 이후 약 18개월 만에 갖는 복귀전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2일 징계에서 풀렸다. 박태환의 자유형 1,500m 개인 최고 기록은 2012년 2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스테이트오픈에 출전해 작성한 한국 기록 14분47초38이다. 아시아 및 세계 기록은 쑨양(중국)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세운 14분31초02다.

이번 동아대회는 오는 8월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를 겸해 치러진다.

그러나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1위를 하고 FINA가 정한 A기준기록(15분14초77)도 통과했지만,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다.

FINA 징계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금지약물을 사용해 경기단체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500m 뿐만 아니라 자유형 100m·200m·400m 등 네 종목에 참가신청서를 냈다. 26일 자유형 200m, 27일 자유형 400m, 28일 자유형 100m 경기를 차례로 치른다.

/연합뉴스

기는 독수리·나는 곰... 부담되는 호랑이

KIA, 10위 한화·1위 두산과 대결

'요주의 팀' 한화

최하위 성적에 내부 잡음

양현중·윤석민·헥터 출격

'이목 집중' 부담감 해소 관전

'선발 왕국' 두산

최근 10경기 9승 1패

장원준 등 선발 탄탄

불방망이로 두들겨야

'극과 극'의 상대를 만나야 하는 부담 많은 한 주가 KIA 타이거즈를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부터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시즌 첫 시리즈를 치른다.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와 격돌한다. 최하위의 한화와 거점없는 질주의 1위 두산. KIA에게는 부담 배제의 어려운 승부가 될 전망이다.

마운드 힘과 최근 분위기를 보면 KIA에게 유리한 한화와의 주중 경기다.

헥터가 최근 두 경기 부진하기는 했지만 KIA 선발진은 큰 무리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 한화와의 경기를 위해 양현중을 시작으로 해서 윤석민, 헥터가 대기

하고 있는 상태. 반면 한화는 선발난 속에 불펜진 과부하까지 겹치면서 매 경기 힘들게 마운드를 운영해가고 있다. 또 최악의 성적에 김성근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오면서 한화는 최근 '요주의 팀'이 됐다.

KIA는 지난 주말 두 경기에서 무려 27점을 뽑아내는 화력을 과시하면서 시즌 첫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KIA의 우위가 점쳐지는 시리즈지만 그만큼 부담이 크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시리즈,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칫 KIA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다.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양현중도 마음 고쳐야 한다. 양현중은 올 시즌 4경기에 나와 27.2이

닝을 소화하면서 3.25의 평균자책점을 찍고 있지만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앞선 삼성전에서는 8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야수·불펜진의 잇박자 속에 첫 승 신고가 미뤄지고 있다. 부담감을 털고 실수 없는 차분한 플레이를 해야 하는 KIA다.

주말에 만나는 두산의 기세는 거침없다. 두산의 최근 10경기 성적은 9승1패. 지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질주로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두산이다.

이번 맞대결은 '선발 야구'로 눈길을 끈다. 두산은 지난주 장원준-니퍼트-노경은-유희관-보우엔-장원준으로 이어진 선발진을 통해서 5승을 챙겼다.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노경은을 제외하고 선발투수가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좌완 장원

준은 2승을 쓸어담으면서 100승 고지도 밟았다.

KIA의 선발진도 두산과 견주어 손색 없다. 초반 우려를 샀던 지크가 공격 본색을 드러내면서 연승에 성공했고, 5선발 임준혁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선발진은 흔들림이 없다. 한기주가 지난 등판에서 1688일 만에 선발승을 거뒀고, 김용동·홍건희 등 선발 자원들도 있다. 곧과 호랑이의 선발 싸움으로 주말 챔피언십드가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한 주에 이병호가 1400안타에 도전한다. 앞으로 10개의 안타를 더 하면 이병호는 통산 32번째 1400안타 주인공이 된다. 김주찬은 500타점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화, 2013년보다 심각

3승 16패...승률 0.157

볼넷·폭투·실책 1위

팀 타율 9위·홈런 10위

3승 16패의 처참한 성적. 잊고 싶었던 2013년 시즌의 악몽까지 떠오른다. 한화는 25일 현재 3승 16패로 최하위(10위)로 처졌다. 9위 KIA(8승 10패)와 격차는 5.5게임으로 벌어졌다.

빙그레 시절을 포함해 한화의 역대 최저 승률은 처음 KBO리그에 합류한 1986년 0.290(31승 1무 76패)이다. 하지만 당시 빙그레는 '신생팀'이었다.

한화가 기억하는 최악의 시즌은 2013년이다. 한화는 그해 4승 1무 85패로 승률 0.331에 그쳤다. 신생팀 NC가 시즌 초 한화와 '탈꼴찌 경쟁'을 펼치다, 후반기 선전하며 승률 0.419(52승 4무 72패)로 7위에 올랐다. 2016년 한화는 2013년만큼이나 힘겹다.

한화 투수진은 25일까지 169이닝을 소화했다. 이중 선발은 65이닝만 던졌다. 선발이 경기당 3.1이닝만 버텼고, 남은 이닝은 불펜진이 떠맡았다. 에스날 로저스, 안영명 등 선발진의 부상 공백이 크게 보였다. 투수들은 볼넷(112개)을 쏟아내고, 폭투(18개)를 범했다. 이 부문 모두 불명예 1위다. 실책(25개)으로 자멸한 경기도 많았다. 실책도 1위다.

타선도 점점 힘이 떨어졌다. 팀 타율 3~4위를 오가던 한화 타선은 25일 현

재 타율 0.261로 9위까지 처졌다. 홈런은 단 10개로 최하위다. 도루는 10차례 시도해 6개를 성공했다. 투타, 주루와 수비 모두 최악의 상태다. 한화는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득점(68개)을 했고, 최다 실점(138개)을 했다. 이길 수 없는 경기의 연속이다.

김성근 감독 특유의 '역산'은 통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계산 밖'의 상황이 나왔다. 한화는 무너졌다. 한화는 올 시즌 역전승을 두 차례(9위) 거뒀고, 역전패는 8번(1위)이나 당했다.

김성근 감독은 특유의 적극적인 계투 작전을 펼치고, 타선을 자주 변경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불펜진만 소모하고 소득 없이 경기를 끝내는 날이 많다. '성공하지 못한 작전'은 비판을 낳는다. 한화 팬마저 '투수 흑사'와 '잿은 라인업 변경'을 이유로 김성근 감독을 비판한다.

패배가 쌓이니, 선수단 분위기도 가라앉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더구나 좌완 최고 불펜 정우람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한 한화는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하면 '실패한 팀'으로 평가받는다.

희미하지만, 희망의 빛은 보인다. 선발 요원 심수창과 이태양이 1군에 복귀해 가능성을 보였고, 로저스와 안영명도 5월 초 복귀를 준비 중이다. 4월 말과 5월 성적이 한화의 반등과 추락을 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기 못 뒀 강정호



부상 결장 추신수



데뷔 첫해 박병호

ML 올스타 후보 올라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2016 메이저리그 올스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오는 6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리는 제87회 올스타전에 출전할 선수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3루수 올스타 후보, 추신수는 아메리칸리그 외야수 올스타 후보, 박병호는 아메리칸리그 지명타

자 올스타 후보에 올랐다. 강정호는 작년 경기 중 당한 무릎 부상으로 아직 올 시즌 경기에 한 차례도 출전하지 않았고, 추신수도 종아리 부상으로 5경기에만 출전 후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태인데도 후보로 선정됐다. 박병호는 데뷔 첫해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한국계 포수 헝크 콩거(한국명 최환)도 아메리칸리그 포수 올스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는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팬 투표로 선정한다. MLB닷컴

홈페이지나 30개 구단 홈페이지에 PC나 모바일로 접속하면 투표할 수 있다. 5월에는 한국어 투표 시스템도 열린다.

투표는 1인당 최대 35회, 하루 최대 5회 참여할 수 있다.

투수와 후보 야수 출전자는 선수투표와 올스타전 감독의 판단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아메리칸리그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네드 요스트 감독, 내셔널리그는 뉴욕 메츠의 테리 폴린스 감독이 이번 올스타전 사령탑을 맡는다. /연합뉴스

'100승' 김광현 나눔 실천

클럽 판매 수익금+5천만원 장학금 마련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에이스 선발투수 김광현(28)이 나눔을 실천한다.

김광현은 24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홈 경기에서 KBO리그 역대 26번째, 왼손 투수 중 역대 3번째로 100승 고지를 밟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광현은 자신의 등 번호와 같은 숫자인 29개의 선수용 글러브를 자비로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과

별도로 5000만원을 추가해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인천 지역 초·중학교 야구부와 구단 1차 지명 대상 고등학교 선수로, 인천광역시야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장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야구 꿈나무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현은 "야구로 받은 사랑은 야구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김광현 100승 기념 글러브는 각 글러브에 1번부터 29번까지 숫자가 표시돼 있으며, 1번은 김광현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28개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선 이벤트 페이지(www.sk29glove.co.kr)에서 하나당 100만원에 판매된다. /연합뉴스